

< 지옥의 사자 >

"잠이 안 오면 성경이라도 들어볼 텐가?"

【 외관 】



흑장발, 청안, 과하지 않은 근육질, 176cm 70kg

<https://www.evernote.com/shard/s558/sh/426e434c-8e5f-d62a-907f-ab412b05de05/14bc6b196e4e088eb9515e26c11b15a3>

바닥에 닿을 듯 말 듯. 제 주인의 우직한 성격을 빼다 박은 것 같은 뻗뻗하고 곧은 흑색 머리카락에 오른쪽 머리카락은 곱게 땸아 금장으로 마무리하였고, 왼쪽 머리카락은 길게 빼어 줄안대를 낀 왼쪽 및 흉터를 가렸다.

머리카락과 별반 성질이 비슷하여 제멋대로 자란 잘 정리되지 않은 두꺼운 눈썹, 길고 뻗뻗한 흑색 속눈썹 안쪽으로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심해의 색을 닮은 눈동자에는 죽은 자인 것 마냥 생기가 돌지 않았고, 금수를 닮아 길고 날카로운 동공이 상대를 응시했다.

어두운 색의 얼굴은 전체적으로 거칠고 퍼석해 보였으며, 눈가나 입가에 열게 새겨진 잔주름은 그의 세월을 말해주는 듯 했다.

마치 짐승의 발톱에 긁힌 것 같은 작은 잔흉터나 커다란 흉터가 온 몸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. 개중 눈에 띄는 것은 오른쪽 눈의 세로로 죽 그어진 흉터, 왼쪽 눈을 가로지르는 세 줄의 흉터, 반쯤 잘려나간 오른쪽 귀, 흉부 등이 있었다.

흉터는 하나같이 오래 된 듯 딱지마냥 딱딱하게 굳어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.

언제나 한 손에는 모서리가 금장으로 마무리된 검은 표지에 붉은 색으로 글씨가 적힌 두꺼운 서적을 들고 있었으며 몸 곳곳에 검은 털이 붙어있었다 하더라.

격식은 그닥 차리지 않는 편인지 감잡한 옷차림을 기피했으며, 필요 외의 일상생활에선 제복을 입다 만 것 같은 차림새였다.

언제나 은색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녔으며, 옷 안쪽으로 넣어 걸으로 보이지 않게 하였다.

【 이름 】
마르바스/Marbas

【 나이 】
32

【 성별 】
시스젠더 남성

【 키 / 몸무게 】
176cm, 70kg

【 국적 】
이페리아 제국

【 학부 】
방어학부 (디케아)

【 성흔 (이능력) 】
소환
무기는 『레메게톤』이라고 불리우는 두꺼운 마법서이며, 알아볼 수 없는 문자들로 빼곡히 차 있다.
전투 시에는 커다랗고 검은 사자 형태의 악마 계약마를 소환한다.
계약마는 계약자와 동행하며 공격을 대신 맞아주거나, 협공하기도 한다.
계약마 자체에는 리미트가 없으나 계약자의 상태에 영향을 받으며, 계약자가 안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마법서가 크게 훼손되었을 시 형체가 사라지며 인세(人世)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.

【 스테이터스 】
공격력 : 5
방어력 : 25
지력 : .
설화 : .

【 스킬 】
보복 (적군의 공격을 1턴 동안 반사)

【 성격 】

매사 진지하게 진심으로 임하며 적당히 놀 줄 알고 적당히 일 할 줄 아는 심심한 성격이라고
평가받는다.

하지만 평가와는 다르게 전우애를 중시하며, 정도 많아 친해진 상대에겐
거리낌없이 자신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며 의외로 감수성이 풍부하다고 한다.
조금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어 쉽게 욕하고 화를 내기도 하지만 또 금세 풀리기도 하는 둥
변덕스럽다는 느낌이 강하다.

【 기타 】

계약마와 다소 사이가 친밀해 보이며, 평소에도 함께 있으며 타고 다니거나 턱을 긁어주는
등 친밀한 모습을 보인다.

딱히 좋아한다고 할 것은 없으나 싫어하는 것은 명확한데, 큰 소리에 민감한 듯 하다.
고민이 있거나 심란할 땐 머리카락 끝을 손가락으로 비비고 꼬는 습관이 있다.